



말씀을 기억해요.

바울은 세 번째 선교여행 중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 말했어요.

“성령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많은 고난이 있다고 합니다. 어떤 고난이 있을지는 모릅니다.

그러나 저는 복음을 전하다가 채찍에 맞았어도, 돌에 맞았어도, 감옥에 갇혔어도, 후회한 적 없습니다.

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예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일이니까요. 앞으로도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는 제 목숨도 아깝지 않아요!” 바울은 어떤 환경에서도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성령충만한 그리스도의 대사였답니다.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어린이라면 두려워하지 말고 바울처럼 용기 있게 예수님을 전하도록 해요!



말씀을 탐구해요.

- 1) 바울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나요?
- 2) 바울처럼 후회하지 않기 위해 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?
- 3) 다음 말씀에 빈칸을 채우고, 함께 외워보세요

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□□

곧 하나님의 은혜의 □□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
나의 □□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

(사도행전 20장 24절)

◀ 절취선

To. 에게

우리 같이 교회갈래? 그래 좋아!

